최신의 이슈/트렌드를 반영한 '민감 물가지수' 개발

7팀

2024 Data Analytics Team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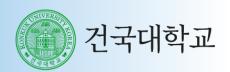
김대호 202012335

김태규 202011409

박영원 202011880

송용재 201911532

홍은기 202012154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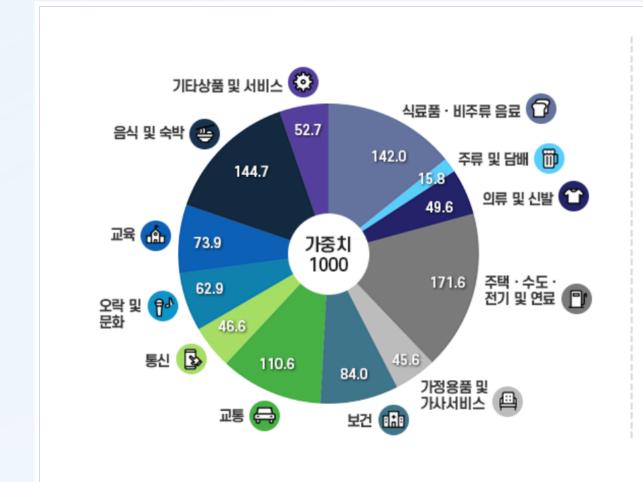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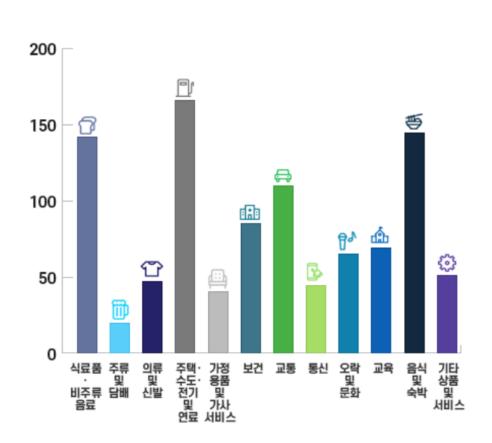






통계청이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





[2022년 기준 지출목적별 분류 가중치]

전국	물가지	기수의	작성
----	-----	-----	----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예

	9월	가중치
쌀(20Kg)	124.76	400
햄버거(1개)	102.85	200
휘발유(1L)	109.35	400
계	114.21	1,000

9월 소비자물가 지수 =
$$\frac{124.76 \times 400 + 102.85 \times 200 + 109.35 \times 400}{1,000} = 114.21$$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2.5년 주기로 개편되며, 이로 인해 각종 이슈/트렌드를 민첩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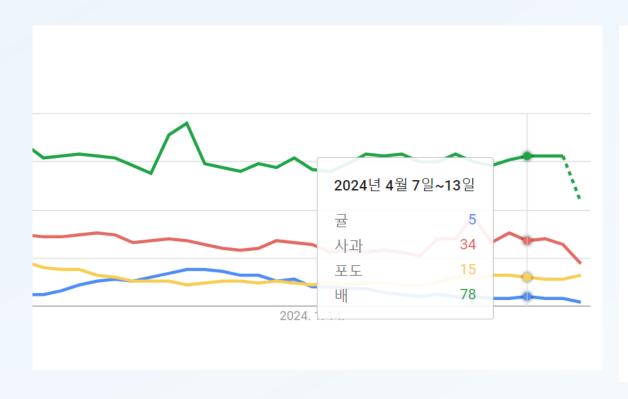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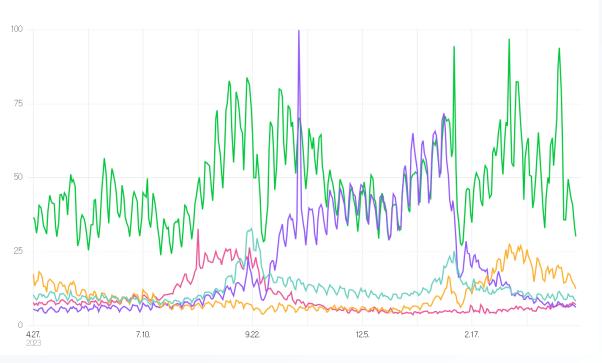


민감 물가지수

Google Trends

NAVER Data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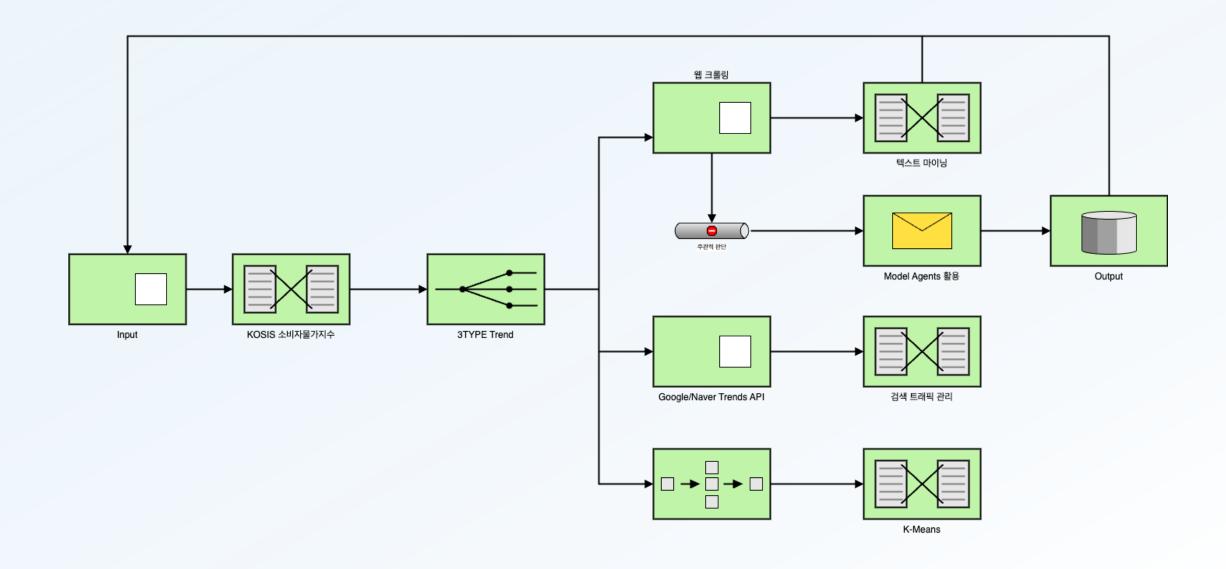






기존 통계청의 가중치를 토대로, 월별 상향/하향 조정

지출목적별 12개 대분류	대표품목	가중치
0 총지수	총계	1000.0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쌀	4.2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현미	0.4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찹쌀	0.5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보리쌀	0.2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콩	0.5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땅콩	0.1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혼식곡	0.4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밀가루	0.1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국수	0.7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라면	2.4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당면	0.2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두부	1.2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시리얼	0.4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침가루	0.6
N1 시己포 미 비즈르으리	케이그	16



기존 주제와의 차별점



향후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 품목/지표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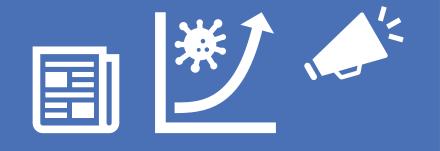
후르츠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과일 처럼 다른 품목들의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 품목들 식별

기존 주제

향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할 품목 발굴이 목표였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품목 간의 연쇄 가격 상승을 규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움

기존 주제와의 차별점



월별 트렌드/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물가 지수 개발

현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의 트 렌드/이슈를 민첩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신성을 갖춘 '민감 물가지수' 개발

현재 주제

여러 품목들의 물가 사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포기

대신, 현행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진 단점인 '최신성 부족'을 보완한 새로운 물가지수 개발을 목표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가?

후르츠 플레이션, 밀크 플레이션 등은 이미 알려진 사 실이다. 결국 무엇을 분석하는지?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물품을 찾을 때 시장에 있는 모든 품목을 사용하는지?

물가를 견인하는 요소를 식별하는 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척 다양한데,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추가질문



감사합니다.

